

## 이광수의 『재생』에 나타난 재생의 의미

이 경 재\*

### 요 약

1910년대와 1920년대 이광수 문학은 각각 근대성과 전근대성이라는 말로 구별되고는 하였다. 이 때의 근대성이 주로 개성이나 개인의식과 관련되었다면, 전근대성은 공동체 의식과 관련되어서 논의되었다. 이 때의 공동체 의식은 주로 조선(민족)과 관련되며, 1920년대 대표작인 『재생』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필자는 『재생』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은 민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대칭성의 사고와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생』은 3.1 운동 이후 비대칭적인 사고에 깊이 침윤된 세상의 모습을 치밀하게 보여준다. 3.1 운동이 실패한 자리에는 ‘소화기(돈)와 생식기(애육)의 세상’이 펼쳐진다. 『재생』에서 돈은 조선 사회의 주인이라고 할 만큼 그 힘이 강력하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김순영이다. 자본의 배후에 놓여진 교환의 원리는 비대칭성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본래 교환은 증여와는 상반된 작용을 하며 비대칭성의 원리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재생』에 드러난 사랑도 이기적 애육에 바탕한 것으로서, 그것 역시 비대칭성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힘이 된다. 봉구 역시도 두 번째 감옥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순영과 마찬가지로 비대칭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백운희가 돈의 힘으로 순영을 물건처럼 소유하려고 했다면, 신봉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순영을 물건처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재생』에서는 3.1 운동과 같은 정치적 활동도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익을 추구하려는 비대칭성에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봉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머물

\* 숭실대 국문학과 교수

때, 비대칭성의 사고로부터 벗어나 대칭성의 사고를 깨닫는다. 이 때의 감옥은 대칭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봉구의 대칭적 사고가 적용되는 범주는 민족을 넘어 인류(천하 사람)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이는 다시 인류애를 넘어 천지 만물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것은 자기라는 존재는 '종(種)'으로서의 사회의 일원이자 자연의 일원이며, 우주 속의 미미한 일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대칭성의 사고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다. 봉구가 감옥을 나와 농촌인 금곡에서 농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자신이 깨달은 대칭성 사고를 실천하는 일에 해당한다. 봉구를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대칭성의 사고가 드러났다면, 『재생』의 또 다른 주인공인 순영을 통해서도 작가가 부정하는 비대칭성의 사고가 드러난다. 이광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대칭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순영에게 비참한 삶과 죽음을 선사함으로써, 비대칭적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주제어: 이광수, 『재생』, 대칭성, 증여, 교환, 순수증여, 공동체

## 목차

1. 서론
2. 비대칭성의 세계
3. 봉구를 통해 드러난 대칭성의 지향
4. 순영의 삶을 통해 드러난 비대칭성의 부정
5. 결론

## 1. 서론

이광수는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대변인이자 『독립신문』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변절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1921년 귀국한다. 1921년 상해에서 돌아온 이광수는 『선도자』(1923)와 『금십자가』

(1924)를 집필하지만, 경무국의 불인가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각각 완성을 보지 못한다. 그 이후에 『동아일보』에 연재하여 완성한 장편소설이 바로 『재생』이다.<sup>321)</sup> 『재생』은 『동아일보』에 1924년 11월 9일부터 1925년 3월 12일까지 연재된 후, 다시 1925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연재(총 209회 연재)되었다. 이후 1926년과 1934년에 각각 회동서관과 박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된다. 이광수가 이전의 장편소설을 미완으로 남겨둔 것과 달리 척추 카리에스 수술로 석 달간 연재를 중단하면서도 끝내 작품을 완성한 것은, 『재생』이 이광수에게 얼마나 중요한 작품인가를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광수의 『재생』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높지 못했다. 『재생』은 당대에 이미 김동인이나 김기진과 같은 평론가들에 의해 흥미분위의 통속소설로 규정되었으며<sup>322)</sup>, 2000년대 이전까지도 이러한 평가는 지배적인 것이었다. 김윤식은 『재생』이 3.1 운동 이후 한국의 타락상을 그린 “한갓 통속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sup>323)</sup> 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홍혜원은 『재생』의 대중적 속성을 본격적으로 고찰하면서 인물들의 선악 이분법적 구도, 강렬한 감정, 극단적 행동, 극적인 사건들, 우연의 일치, 운명적인 엇갈림과 같은 멜로드라마적 특징을 규명하기도 하였다.<sup>324)</sup>

321) 지금 내 눈앞에는 별거벗은 조선의 강산이 보이고, 그 속에서 울고 웃는 조선 사람들이 보이고, 그중에 조선의 운명을 맡았다는 젊은 남자가 보인다. (중략) 나는 〈先導者〉를 중편까지만 쓰다가 경무국의 불인가로 중지하고 〈金十字架〉를 계속하려 하였으나 〈再生〉을 쓰기로 하였다. 그것이 쓰고 싶기 때문이다. (이광수, 『『재생』 作者의 말』, 『동아일보』, 1924.11.8.)

322) 김동인, 『춘원연구』, 『김동인 전집』 16권, 조선일보사, 1988, 84-94면, 김기진, 『김팔봉문학전집1』, 문학과지성사, 1988, 116-119면.

323)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3』, 한길사, 1986, 821면. 김윤식은 “『재생』이 지식층에 읽힐 작품이 아님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서민층이 즐길 신파의 눈물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저차원의 통속성인 것이다.”(위의 책, 824면)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324) 홍혜원, 『『재생』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양식』, 『한국근대문학연구』 10호.

다음으로 작품의 후반부에 나타난 강렬한 민족(주의) 의식을 통해서 『재생』을 민족(주의) 의식과 연결시키는 논의를 들 수 있다. 임화 이후 근대문학 연구자들은 1910년대 이광수 문학과 사상의 핵심을 근대성이라는 말로 규정지었다. 이에 반해 1920년대 이후 이광수의 소설이나 문학론은 ‘전근대성’의 노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근대성은 주로 개성 혹은 개인의식과 관련하여, 전근대성은 공동체 의식과 관련해서 논의되어 왔다. 김현주는 1920년대 이후 이광수의 문화적 정치적 이상은 더 이상 자유주의적이거나 시민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자유주의적이며, 국가(또는 민족) 이외의 정치적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식민적<sup>325)</sup>이라는 것이다. 서영채는 “1910년대에 20대였던 이광수는 힘의 모랄을 부르짖는 사회진화론자였고,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3,40대의 대부분을 도덕적 민족주의자로서 살았<sup>326)</sup>”다고 파악한다. 김병구는 “김순영이라는 젊은 여성의 타락과 파멸의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는 『재생』은 ‘조선과 조선 민족을 위한 봉사-의무의 이행’의 관점에서 다시 읽을 필요가 있는 것<sup>327)</sup>”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1920년대 이광수가 근대적인 개인의식이나 자유주의와는 거리를 두며 조선(민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328)</sup>

한국근대문학회, 2004.10, 64-92면.

325) 김현주, 「이광수의 문화적 파시즘」,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3, 100면.

326) 서영채, 「이광수, 근대성의 윤리」, 『한국근대문학연구』 19호, 2009.4, 156면.

327) 김병구, 「이광수 장편소설 『재생』의 정치 시학적 특성 연구」, 『국어문학』 54집, 2013.3, 187면.

328) 필자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공동체 의식이 이광수 본인도 수시로 밝힌 “조선과 조선민족을 위한 봉사-의무의 이행”(이광수, 「余의 作家的 態度」, 『동광』, 1931.4.)과는 조금 결을 달리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이 작품의 표제이기도 한 ‘재생’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이 있다. 사에구사 도시카쓰는 『재생』은 “작가 자신의 ‘재생’을 나타낸 작품”이며, “이광수에 있어서는 그가 상해에서 귀국한 후 다시 국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sup>329)</sup>이라고 결론 내린다. 강헌국은 『재생』에서는 도덕적 장치가 제거된 사랑이 금전과 성욕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된 모습이 형상화되지만, 사랑은 다시 그 스스로의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여 “봉구가 염원하는 인류에”<sup>330)</sup>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강헌국은 재생의 의미를 신봉구가 인류애를 체득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수형은 “이기심을 버리고 신을 섬기며 자기를 희생하는 거듭남”<sup>331)</sup>을 재생의 의미로 파악한다. 정하늬도 재생의 의미를 기독교와 관련시키면서, 신봉구가 기독교 사상을 핵심으로 삼아 지도자로 거듭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32)</sup>

329) 사에구사 도시카쓰, 『『再生』의 뜻은 무엇인가』, 『동방학지』 83집, 1994, 212면.

330) 강헌국, 『계몽과 사랑, 그 불편한 관계에 대하여 - 『개척자』와 『재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1집, 2013.12, 120면.

331) 이수형, 『이광수 문학과 세속화 프로젝트-『무정』과 『재생』의 탈주술화와 재주술화』, 『인문과학연구논총』 38권 1호, 2017.2, 88면.

332) 정하늬, 『회개와 거듭남, 정결한 지도자 되기 - 이광수의 『재생』론-』, 『현대소설연구』 68호, 2017.12, 479-514면. 이외에도 2000년대 이후 『재생』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어졌다. 신윤주·권혁건은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나쓰메 소세키의 『풀베개(草枕)』와 이광수의 『재생』 비교연구』에서 온천이 주인공의 감정 변화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고 있다. (신윤주·권혁건, 『나쓰메 소세키의 『풀베개(草枕)』와 이광수의 『재생』 비교 연구-주인공의 온천체험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49집, 2011.2, 287-301면) 서영채는 오자키 고요의 『금색야차』와의 비교를 통하여 『재생』에 나타난 “자기희생이라는 이광수 식 모럴의 구조”(서영채, 『자기희생의 구조-이광수의 『재생』과 오자키 고요의 『금색야차』』, 『민족문화연구』 58호, 2013.2, 207면)를 밝히고 있다. 윤영옥은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사회자본, 경제자본, 상징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재생』에 나타난 “사랑의 문법은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자본들의 동역학과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 자본과 사회자본이 취약했던 여성지식인은 자신들의 문화자본을 공격 사회제도로 편입시키지 못하고 사회적 평판이 폄하되는 상징 폭력에 노

이 글에서는 재생의 의미가 비대칭성의 세계에 빠져 있던 신봉구가 대칭성의 사유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파악하고자 한다. 그것은 순영이의 처절하고 비극적인 삶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대칭성(對稱性)의 사고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sup>333)</sup> 대칭성의 윤리를 따르면 “전체성의 균형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개인적 이익”<sup>334)</sup>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비대칭성의 세계는 증여가 아닌 교환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며, 사람들은 다른 인간이나 자연과의 연속성과 동일성도 느끼지 못하며,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된다.

신봉구는 두 번째 수감생활을 기점으로 비대칭성의 세계에서 대칭성의 세계로 건너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재생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재생’의 의미를 대칭성의 사고와 관련시켜 이해함으로써, ‘작가 개인의 재생’, ‘인류애의 획득’, ‘신을 섬기며 자기를 희생하는 거둬냄’이라는 기존의 해석을 뛰어넘어 새로운 작품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비대칭성의 세계

### 1) 돈과 애욕의 세상

『재생』의 스토리 시간은 3.1 운동이 실패로 끝난지 4년여가 지난

출”(윤영옥, 『자유연애, 문화자본, 그리고 젠더의 역학-이광수의 『재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88집, 2014, 244면)된다고 주장한다.

333) 이러한 의미로 ‘대칭’ 혹은 ‘대칭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레비 스트로스이다. (레비 스트로스, 『야생의 사고』, 안정남 역, 한길사, 1996, 91면)

334) 나카자와 신이치, 『대칭성 인류학』, 김옥희 역, 동아시아, 2005, 173면.

1923년 이후부터이다. 3.1 운동이 실패한 자리, 즉 이광수의 맥락에서라면 민족 계몽이 실패한 자리에는 개인의 욕망만이 남는다. 그것은 감옥에서 나온 순홍이 달라진 세상을 일컫는 “소화기와 생식기의 세상”<sup>335)</sup>이라는 인상적인 문구에 간결하지만 적절하게 압축되어 있다.

『무정』에서는 기껏해야 영채의 기구한 삶과 형식의 돈(출세)에 대한 욕망 정도로 자본주의의 문제가 드러났다면,<sup>336)</sup> 『재생』에서 돈은 조선 사회의 주인이라고 할만큼 그 힘이 강력하다.<sup>337)</sup> 무지막지한 자본의 힘은 당대의 부자인 백윤희가 김순영을 손에 넣는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순영은 하나의 물건이다. 백윤희는 힘과 돈을 덜 들이고 순영을 손에 넣는 방법을 연구하고 순영의 둘째 오빠 순기는 어찌하면 백윤희에게 “가장 많은 값을 받고 순영을 팔까 하는 계책을 연구”(16,95)한다. 실제로 백윤희는 자신이 순영을 “2만 원에 사 왔”(140,381)다고 스스로없이 말한다.<sup>338)</sup>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돈의 힘을 제어할 시대적 이념이 사라진 것과 관련된다. 계몽의 이념이 돈에 대한 욕망을 규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3.1 운동이 실패한 이후 계몽의 이념이 적용되지 않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sup>339)</sup>

335) 이광수, 『재생』, 『한국의 근대성 소설집』, 문성환 엮음, 북드라망, 2016, 411면. 이 책에 수록된 『재생』은 『동아일보』 연재분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인용할 경우, 본문 중에 연재횟수와 페이지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336) 이경재, 『이광수의 『무정』에 나타난 근대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 『민족문학사연구』 54호, 2014.4, 247-269면.

337) 서희원은 『재생』이 근대의 영웅인 부자를 등장시킨 작품으로서, 이들은 “더러운 동시에 매혹적이며, 비난을 받지만 단죄되지는 않는다”(서희원, 『근대의 영웅, 부자의 탄생 - 『재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4집, 2014.8, 115면)고 주장한다.

338) 백윤희는 “네년 행세를 보면 당장에 때려 내쫓을게지만 돈이 먹었어! 돈이 먹었으니가 못 때려 내쫓는 게야.”(134,368)라는 식의 말을 자주 한다.

339) 박혜경의 “감격어린 전율에 몸을 떨며 ‘교육으로, 실행으로’를 부르짖는 것만으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는 순영이야말로 자본의 논리에 가장 깊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점이다. 순영은 단순한 돈의 피해자가 아니며, 적극적으로 돈의 논리와 매력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순영이 백윤희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통해 매우 설득력 있게 형상화되어 있다. 순영은 백윤희가 보낸 고급차를 탔을 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백윤희의 집에 들어가자 이러한 동요는 더욱 심해진다. 백윤희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백윤희! 피, 응. 그 기생작첩 잘하기로 유명한 그 부자 녀석이야?”(21, 107)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 들어와 5-6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백윤희에 대한 생각이 변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수차례 반복되는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는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자본의 거대한 힘이 느껴진다. 동래온천에서 순영은 백윤희에게 정조를 잃는데, 이것도 “순영의 속에 움직이는 유혹의 힘”(42,154)에 굴복한 결과이다. 백윤희를 가리켜 “예끼 짐승 같은 놈!”(43,155)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고민도 하지만, 결국 백윤희의 세계로 나아간다. 한여름을 원산 바다 외딴 섬 별장에서 백과 “순전한 부부생활”(50,170)을 한 순영은 “돈과 육의 쾌락이 심히 기뻐다. P부인을 따라가거나 인순과 뜻을 같이 하거나 그런 일은 침 뱉어 버릴 우스운 일이요, 아직 세상 모르는 어리석은 계집애들의 꿈”(51,173)이라 여기는 것이다.

이처럼 돈에 침윤된 것은 순영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봉구의 어머니는 봉구에게 “요새 계집애들 돈밖에 안다든?”(11,85)이라며 “모두 학교까지 졸업한 애

---

로 민족 구제의 희망에 불타올 수 있었던 『무정』의 계몽적 순진성의 세계는 이들 작품에 이르면 돈을 향한 탐욕스러운 욕망의 세계 앞에서 급격히 무너지게 된다.”(박혜경, 『계몽의 딜레마:이광수의 『재생』과 『그 여자의 일생』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46집, 297면)는 『재생』의 기본적인 시대상황을 잘 보여준다. 『무정』에서는 네 명의 젊은이가 민족주의적 계몽주의로 대동단결하지만, 3.1운동의 실패는 더 이상 계몽을 통한 물욕의 규제를 어렵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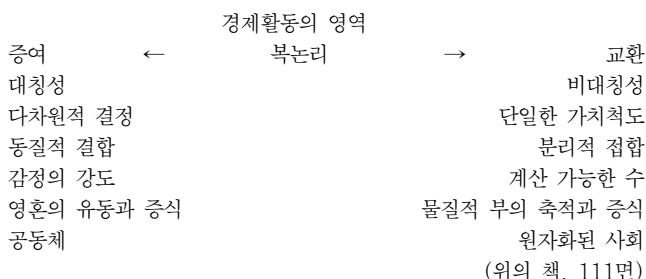
들이 남의 첩으로 들어가지.”(85)라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복레라는 여성도 성환과 약혼까지 한 사이지만 부자집 첩으로 가는 바람에 성환은 학교도 그만두고 중국으로 달아난다.

자본의 배후에 놓여진 교환의 원리는 비대칭성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핵심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sup>340)</sup> 현생인류(호모 사피엔스)의 ‘경제’라는 활동은 ‘증여’와 ‘교환’이라는 두 원리의 ‘복논리’로서 작동하지만, 자본주의는 “비대칭성의 논리의 전형이라고 할 만한 ‘교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sup>341)</sup>한다.<sup>342)</sup> 증여는 증여물을 매개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연결하는 작용을 통해 “대칭성의 원리와 깊은 관련”<sup>343)</sup>을 맺지만, 교환은 증여와는 상반된 작용을 하며 비대칭성의 원리와 깊은 관련을 맺는 것이다. 나까자와

340) 나까자와 신이치는 “마르크스는 근대의 산업사회가 교환의 원리와 그로부터 탄생하는 화폐에 근거한 관계성을 지나치게 발달시킨 결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응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소통)의 형태가 성립되기가 무척 어려워졌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확실하게 파악한 거의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나까자와 신이치,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김옥희 역, 동아시아, 2004, 206면)라고 주장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연결시키는 증여의 논리와 달리 근대 사회를 형성하는 근원적 동력인 교환의 논리는 부정성과 분리성을 근본으로 한다. 교환에서는 증여에서 활동하던 인격성의 힘이나 영적인 힘이 모두 억압되고, 배제당하고, 제거되는 것이다. (위의 책, 52-54면)

341) 나까자와 신이치, 『대칭성 인류학』, 김옥희 역, 동아시아, 2005, 108면.

342) 현생인류의 경제행위의 두 가지 기본축인 교환 원리와 증여 원리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43) 위의 책, 108면.

신이치는 사회의 대부분이 교환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이제까지 증여관계로 맺어져 있던 사람들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흘러 들어와, 서로 연결되어 있던 것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sup>344)</sup> 하게 된다고 말한다.<sup>345)</sup>

다음으로 이 작품에 드러난 사랑도 이기적 애욕에 바탕한 것으로서, 그것 역시 비대칭성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힘이 된다. 김순영은 백윤희와 실질적인 부부의 연을 맺은 뒤에도, 자신의 못다한 애욕을 충족하기 위해 신봉구를 찾는다.<sup>346)</sup> 순영은 봉구의 “천진한 사랑도 받아 보고 싶”(53,177)은 마음으로 봉구와 함께 석왕사로 여행을 가는 것이다. 또한 “여자 부랑자들”로 불려지는 여성들은 연애를 무엇보다 중요시한다. 이들의 연애관은 “연애는 신성하지-사랑만 있으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본처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 있나”(150,401)라는 것이다.

미국 유학까지 한 전문학교의 김교수 역시 이기적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아내가 있음에도 순영을 따라다니고, 실패하자 또 다른 여자를 쫓아다니며, 나중에는 순영의 친구인 인순까지 따라다닌다. 나중에 순영이 백윤희의 집에서 나온 것을 알고는 순영에게 또 추근거린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라고 자기를 알아주고 대접해 주기를 바”(176,456)라는 김교수는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비대칭성의 사고에 빠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344) 위의 책, 120면.

345) 교환 원리에는 그와 관련된 물질이나 사람을 분리하려는 비대칭성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데 비해, 증여 원리는 증여되는 것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유동성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대칭성의 논리의 특징을 뚜렷이 드러낸다. (위의 책, 182면)

346) 이와 관련해 “영혼의 사랑=영원불변이라는, ‘연애’가 이끌고 들어온 사람에 대한 낭만적 환상이 김순영의 경우 일종의 강박증으로 변환되어 나타난 것”(정혜영, 『李光洙와 幻影의 近代文學-『再生』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10집, 2001.12, 221면)이라는 주장도 경청할만하다.

돈(소화기)의 세상과 마찬가지로 애육(생식기)의 세상도 자기만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대칭성의 사고와 연결된다.

비대칭성의 사고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는 신봉구도 김순영과 별반 다를바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봉구와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순영이라는 이분법에 바탕해 논의를 전개한다.<sup>347)</sup> 그러나 두 번째 감옥 체험을 하기 이전까지는 봉구 역시 비대칭적인 사고에 빠져있다는 점에서는 순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광수는 자신의 욕망(여자와 돈)에 충실한 봉구의 성격을 꽤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sup>348)</sup> 『재생』은 이미 백윤희와 깊은 관계를 맺은 순영이 그 사실을 속이고 봉구와 함께 석왕사에 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 장면에서 봉구는 순영에 대한 소유욕과 독점욕으로 가득하다.<sup>349)</sup> 대표적인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마침내 순영은 내 것이다”하는 승리의 강렬한 기쁨을 깨달았다.”(1,65), “순영을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2,66),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는 내 것이다.”(7,77), “어찌하면 순영을 영원히 내 품에서 못 떠나도록 만드나.”(7,78), “‘혼인을 해 버려야 한다.’하고 봉구는 순영을 영원히 자기 것을 만들 방침

347) 홍혜원은 『재생』은 ‘승고의 체험’인 봉구와 ‘비속에 대한 처벌’ 대상인 순영을 통해 서사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홍혜원, 앞의 논문, 66-80면) 김경미도 이 작품이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를 보여주는 순영”과 “고결함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봉구”(김경미, 『이광수 연애소설의 서사전략과 민족담론-『재생』과 『사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7집, 2012년 겨울, 5면)의 이분법을 보여주며, 전자는 배제시키고 후자만 민족에 연결시키는 정신주의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주의는 일제의 식민주의 담론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348)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여러 독립활동을 하는 순영의 “그놈 역시 첫 맹세를 하고 계집과 돈을 따라다니다가 그리 되었으니까!”(154,411)라는 말은 봉구의 삶을 잘 압축해 보여준다.

349) 또한 봉구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인간으로 그려진다. 봉구는 편모 슬하에서 성장하면서 “꾸중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제 맘대로 뛰고 놀고 자”(3,67)란 것으로 이야기된다. “자존심이 강한”(3,68)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된다.

을 생각한다. 혼인을 하여서 순영을 영원히 내 안방에 갖다가 가두어 놓아야 한다.”(8,78), “어쩌면 이것이 내 것이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내 것이 되어? 내가 아내라고 부를 사람이 되어?”(8,79) “봉구는 과연 4년이 넘도록 일념에 순영을 생각하였고 어쩌하면 내 사람을 만들까를 생각하였다.”(8,79), “장차 오직 자기의 품에밖에 안겨 볼 일이 없을 그러한 깨끗하고 티 없는 처녀다.”(53,179), “여보시오, 순영 씨.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밖에는 사랑하는 남자가 없소? 분명히 당신은 처녀요? 나는 이 자리에서 그 대답을 들어야 하겠소이다.”(59, 193), “만일 순영이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이렇게 생각할 때에 봉구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60,195)

백윤희가 돈의 힘으로 순영을 물건처럼 소유하려고 했다면, 신봉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순영을 물건처럼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다.

순영을 소유하려는 이기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자, 봉구는 이제 돈의 힘으로 순영에게 복수하려고 한다. 돈을 많이 벌어서 복수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돈의 힘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백윤희나 순영의 삶의 방식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 봉구는 “김영진(金英鎭)이라는 가명으로 인천 마루김금미두米豆 취인중매점에 사환 겸 점원 겸”(74, 227)으로 취직한다. 미두란 “한 놈이 잘 되려면 아흔 놈이 망해야 되는 법”(77,235)에 바탕한 것으로서 비대칭적인 교환논리가 극단에 달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미두 취인점에 취직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나는 인생의 모든 이상과 모든 의무를 다 내버렸다.”거나 “결코 남의 신세를 아니 지기로 또 따뜻한 인정이라는 것을 빼어 버리기로 결심한 것”(78, 237)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일로 분명하게 의미부여가 된다.

## 2) 개인적인 욕망에 바탕한 정치 활동

지금까지 『재생』에 대한 대표적인 독법은, 이 작품이 3.1 운동의 대의가 사라진 이후의 타락상을 그렸다는 것이다.<sup>350)</sup> 다음의 인용문에는 숭고한 대의로서의 3.1운동과 타락한 삶으로서의 현재라는 이분법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조선을 위하여 몸을 바친다”던 사람들은 어느새 “연애와 돈”이라는 종교에 지배를 받는 “이기적 개인주의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또 혹은 그들의 가정의 영향으로 혹은 3.1 운동 당시의 시대 정신의 영향으로 그들은 거의 다 애국자였었다. 만세 통에는 숨어 다니며 태극기도 만들고 비밀 통신도 하고 비밀 출판도 하다가 혹 경찰서 유치장에도 가고 그중에 몇 사람은 징역까지 치르고 나왔다. 그때에는 모두 시집도 안 가고 일생을 나랏일에 바친다고 맹세들을 하였다. 그러한 여자가 서울 시골을 합하면 사오백 명은 되었다. 그러나 만세열이 식어 가는 바람에 하나씩 둘씩 모두 작심삼일이 되어 버려서 점점 제 몸의 안락만을 찾게 되었다. (중략) “조선을 위하여 몸을 바친다”는 것은 옛날 어렸을 때 꿈으로 여기고 도리어 그것을 비웃을 만하

350) 『재생』을 3.1 운동에 대한 후일담으로 읽는 것은, 『재생』에 대한 대표적인 독법 중의 하나이다. 김윤식은 “춘원은 『재생』에서 3.1 운동 후의 한국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3.1 운동에 참가했던 한국 젊은이들의 패배한 모습을 쓰고자 하였다.”(김윤식, 앞의 책, 817면)라고 지적하였다. 이해령은 “염상섭은 만세전에 연애 따위는 청산했음을, 이광수는 만세후에 연애와 더불어 방황이, 전락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이해령, 『正史와 情史 사이: 3.1운동 후일담의 시작』, 『민족문학사연구』 40권, 2009년 가을, 234면)한다고 주장한다. 권보드래는 『재생』이 “3·1운동의 후일담을 타락과 퇴화의 서사로 그려”(권보드래, 『3·1운동과 '개조'의 후예들-식민지시기 후일담 소설의 계보』, 『민족문학사연구』 58권, 2015년 가을, 236면)냈다고 보고 있다. 서여진은 3.1 운동의 실패라는 폐허 속에서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려고 한 작품으로 평가한다.(서여진, 『『재생』에 나타난 『장한몽』의 구조』, 『춘원연구학보』 5집, 2012, 305-329면)

게 되었다.

‘연애와 돈.’ 이것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종교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뿐이 아니다. 그들의 오라비들도 그들과 다름없이 되었다.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그들의 오라비들의 맘이 풀어져서 모두 이기적 개인주의자가 되고 말았다. (150,402)

그러나 『재생』에서는 3.1 운동이 처음부터 ‘돈이나 애욕’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숭고한 운동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뜻밖의 인식을 드러낸다. 봉구가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옥살이까지 하는 심층의 동기는 바로 순영에 대한 애정이다. 3.1 운동은 공동체를 위한 숭고한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욕망과 이익에 바탕한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봉구는 “혹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리라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몸을 바치는 일도 하노라 하기도 하였으나 그것도 결국은 내 한 몸의 만족을 위한 것에 지나지 못하였다.”(130,360)고 반성한다. 이 때 ‘내 한 몸의 만족’이란 3.1 운동에 대한 헌신이 순영에 대한 애욕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3.1 운동도 비대칭적인 사고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형상화되는 것이야말로 『재생』의 가장 특이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들은 3.1 운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순영을 욕망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순서가 뒤바뀐 상황을 잘 보여 준다.

봉구는 여러 번 위험한 지경을 당하였고 또 마침내 셋 중에 맨 먼저 붙들렸다. 그러나 그가 순영을 생각할 때 모든 고생과 위험은 꿀과 같이 달았다. 만일 자기가 사형대에 올라선다 하더라도 순영이가 곁에서 보아 주기만 하면 목이 달리면서도 기쁘리라 하였다.(8,80)

봉구는 무슨 까닭으로 이 운동을 시작하였는지 그것조차 잊

어버렸다. 인제는 다만 자기가 힘을 쓰면 쓰느니 만큼 위험을 무릅쓰면 무릅쓰느니 만큼 순영이가 기뻐해 주고 애썼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기뻐다.(9,80)

나는 조선을 사랑한다.- 순영이를 낳아서 길러 준 조선이니 사랑한다. 만일 순영이가 없다고 하면 내가 무슨 까닭에 조선을 사랑할까? 순영이를 알기 전에도 나는 조선을 사랑하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내가 왜 조선을 사랑하였는지 모른다. 순영이를 떼놓으면 조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10, 83)

봉구는 순영을 사랑하면서, 자신이 “무슨 까닭으로 이 운동을 시작하였는가. 그것조차 잊어 버린 채 3.1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처음으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이다. 봉구는 3.1 운동 기간과 감옥 생활 내내 오직 순영이만 생각하며 지낸다. 이러한 마음은 감옥을 나온 후에도 변함이 없다. 신봉구는 김순영에게 보내는 편지에 “만일 내가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낳고 길러 준 나라이기 때문이로소이다.”(52, 175)라고 쓴다.

『재생』에서는 3.1 운동과 같이 대의에 바탕한 행동이 비대칭성과 관련된 것으로 그려지는 장면이 또 하나 등장한다. 경훈은 XX단에 가입한 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다.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야심”(84, 251)이 강한 경훈은 XX단의 사람이 찾아와 큰 사업을 의논하자, “고맙고 기쁘기도 하여서 너무도 흥분된 끝”(84.252)에 “30만 원 내가 혼자 다 내지요.”(84.252)라고 약속한 것이다. 결국 경훈은 3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만다. 경훈의 자기애가 결국에는 살부라는 패륜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서술자는 경훈이 “지금은 독립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어떤 비밀결사의 기계로 움직이는 것”(84, 251)이라고 하여, 살인사건의 책임이 XX단에도 있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

다. 이광수의 『재생』에서는 봉구가 열심히 참가했던 3.1 운동이나 XX단에 속한 경훈의 활동이 모두 자기를 내세우는 비대칭성에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sup>351)</sup>

### 3. 신봉구를 통해 드러난 대칭성의 지향

봉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지낼 때, 커다란 사상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재생’에 해당한다. 이 때의 감옥은 대칭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 곳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자궁의 원형적 상상력에 부합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고립된 공간으로서 교환원리에 바탕한 비대칭성의 세계와도 단절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 감옥은 여러 문명에서 대칭성의 원리가 발견되는 공간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352)</sup> ‘자기와 타자, 자기와 환경, 인간과 동물 등의 온갖 경계가 해체’되는 대칭성의 논리를 익히기 위한 이니시에

351) 그러나 경훈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가 상해로 달아난 이후의 행적은 매우 진중하고 헌신적이다. 당의 신임을 얻어 국내로 돌아온 경훈은 정성을 기울여 독립 운동에 나선다. 이후에는 자신의 쫓값을 달게 받으며 봉구를 구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이러한 경훈의 모습은 비대칭성의 세계에서 대칭성의 세계로 나아간 봉구와 유사하다.

352) 나까자와 신이치는 그 이니시에이션의 장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제로 오래된 형태의 이니시에이션 의식이 치러지고 있는 지구상의 많은 장소에서는, 의식에 참가할 예정인 젊은이들의 눈을 가리거나, 칠흙같이 어두운 곳에 젊은이들을 장시간 방치해 극도의 불안을 느끼도록 합니다. (중략) 이런 반인반수의 괴물이 살고 있는 우리 ‘마음’ 속의 장소는 어딘가 하면, 바로 고차원의 유동적 지성이 활동하고 있는 무의식입니다. 그곳에서는 ‘대칭성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어 자기와 타자, 자기와 환경, 인간과 동물 등의 온갖 경계가 해체를 일으킵니다. 이니시에이션에 참가하는 젊은이는 이런 장소에 내팽개쳐지는 셈이므로, 그것을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상황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까자와 신이치, 앞의 책, 145면)



이선 의식은 ‘칠흙같이 어두운 곳에 장시간 방치해 극도의 불안’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봉구가 위치한 감옥이야말로 이러한 이니시에이션의 장소로서 가져야 할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곳에서 봉구는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비대칭성의 사고를 하나씩 뿌리 뽑기 시작한다. 처음으로 봉구는 순영에 대한 사랑에 담긴 이기적인 마음을 깨닫는다. 자신은 “오직 순영을 욕심내었던 것”(118, 334)이고 순영이 “내 것이 안 되”자, 자신의 사랑이 “참되고 깨닫지 못함을 뉘우칠 줄을 모르고 도리어 순영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한 것”(118,335)임을 반성한다. 나아가 “내가 오늘까지 사랑한 것, 슬퍼한 것, 기뻐한 것, 모든 것이 다 이기주의의 더러운 동기에서 나온 것”(119,336)이라고 반성하며, “다시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생활을 할 것이다-나는 모든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몸을 바치는 사랑의 생활을 하리라.”(119,337)라고 결심한다. 이기주의의 극복이란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대한 집착을 극복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대칭성의 사고와 연결되는 것이다. 개인적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다른 인간과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강조하는 태도로의 변모는 다음의 인용문에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누구를 사랑하다든가, 내게 해롭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내게 좋은 일이 있으니 기뻐한다든가, 내게 싫은 일이 있으니 괴로워 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이 오직 천하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웃고, 천하 사람의 슬픔을 위하여 울고, 오직 천하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서만 나의 몸과 맘을 쓰고, 나의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생각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0,359)

봉구가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생각하는 “천하 사람”은 민족이라

는 범주를 뛰어 넘는다. 봉구는 “한 번도 자기를 같은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본 일이 없”(121,341)는 일본인 검사에게도 “아마 아내도 있고 아들딸도 있을 것이요, 혹 자기와 같이 늙은 어머니도 있을 것이다.”(122,343)라고 생각하며 공감의 축수를 뺄 정도이다.<sup>353)</sup> 봉구는 “만일 인류의 모든 유산이 다 없고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떨어졌다면 나는 그날로 죽어 버렸을 것이다.”라며, “나는 오직 인류에게 빛을 진 사람”(120,339)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한다. 봉구가 발견했다는 “새롭고 큰 진리”란, “천하 사람이 모두 내 몸이다!”(128,356)라는 대칭적인 사고이다.<sup>354)</sup>

봉구가 깨달은 진리는 인류애의 범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거기에는 다음의 인용문에 나타나듯이, 소, 돼지, 벌레, 새는 물론이고 해와 달과 바람과 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는 존재는 ‘종(種)’으로서의 사회의 일원이자 자연의 일원이며, 우주 속의 미미한 일원으로서의 의미밖에 가질 수 없”<sup>355)</sup>다는 대칭성의 사고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다.

감옥 바로 곁에 있는 도수장에서 날마다 앙양하고 슬픈 소리를 지르고 죽는 소나 돼지들까지도 그 소리를 듣는 이들은 불쌍하다는 생각을 발하지 아니하는가?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죽기를 설위하는 소와 돼지를 꼭 잡아 먹어야만 되는가? 왜 같은 사람끼리 서로 잡아 가두고 서로 때리고 서로 죽여야만 되는가? 봉구의 생각에는 김 의관을 꼭 죽여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꼭 죽여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

353) 강헌국 “그가 추구하는 인류에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할 만큼 광대하고 숭고하다. 민족의 계몽은 그 인류애의 휘하에 배속되어 실천되어야 한다.”(강헌국, 앞의 논문, 136면)고 이야기한 바 있다.

354) 대칭성의 원리는 무의식의 원리와 통하여, 대칭성의 원리에서는 “구체적인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이나 인류와 같은 ‘강綱’을 마치 개체나 개인처럼 취급”(나까자와 신이치, 앞의 책, 61면)한다.

355) 위의 책, 185면.

지 아니하였다. (129,357-358)

그러나 어떤 이름 없는 사람 하나가 혹은 가족을 위하여 혹은 물에 빠지는 아이를 위하여 혹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날도 무엇에 지지 않는 큰 날이다. 비록 그 일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빈 곳 어두운 밤중에 생겼다 하더라도, 또 비록 그가 내버린 목숨이 세상에 드러날 만한 아무 효과도 생기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날의 해와 달은 그 목숨 하나를 위하여 뜬 것이요, 별과 바람과 모든 새와 벌레들은 그 목숨을 위하여 찬송과 기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진실로 그날의 전 인류가 이 목숨 하나의 덕으로 사는 것이요 그 목숨이야말로 그날의 천지의 주인이다. 날마다 이러한 생명 - 의를 위하여 저를 희생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이 날마다 빛이 나고 사람의 생명과 기쁨이 날로 끊어짐이 없는 것이다. (159,420-421)

“이 세상을 연기 드는 방”(131,361)에 비유하는 봉구의 사고 속에서 이 세상은 하나의 유기적 전체이다. 봉구가 새롭게 깨달은 대칭성의 사고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 우주 속에서 고립된 현상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사고에 입각할 때, 인간과 동물은 부자간이며 형제자매 사이라는 식의 관계를 회복해 상호간에 자비에 근거한 우애관계가 부활한다.<sup>356)</sup>

봉구는 곧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난다. 그것은 출옥인 동시에 비대칭성의 세계에서 풀려나 대칭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돈의 욕심과 연애의 욕심과 살려는 욕심과 따라서 나오는 모든 번뇌를 벗어난 봉구”에게는 “새로운 천지의 문”(131,363)이 열린 것이다.

봉구는 금곡으로 가서 헐벗은 조선의 농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산다. 그것은 대칭성의 사고에 바탕한 것으로서, 이제 모든 불행

356) 위의 책, 197면.

을 일으키는 근원인 비대칭성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봉구는 교환이 아닌 증여의 논리에 따라 삶의 모든 과정을 밟아나갈 생각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봉구의 마음에 싹 틔 증여의 논리가 순수증여의 단계에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봉구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깨닫는 것같이 감격하였다. 만일 저렇게 깊고도 은근하고도 헌신적이에요 아무 값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으로써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 하면 얼마나 세상이 행복될까. 만일 자기 혼자만이라도 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조선을 사랑하고 모든 조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때에 봉구의 눈앞에는 한 비전(광경)이 보인다. 그것은 맨 발로 허름한 옷을 입은 예수가 갈릴리 바닷가에 무식한 순박한 어부들과 불쌍한 병인들을 모아 데리고 앉아서 일변 가르치고 일변 더러운 병을 고쳐 주는 광경이다. 사막의 별이 내리 쬐고 바다에는 실물결을 일으킬 만한 바람도 없다. 그 속에서 얼굴이 초췌한 예수는 팔을 두르면서 '사랑'이 복음을 말하고 불쌍한 백성들은 피곤한 얼굴로 예수를 쳐다보며 그 말을 듣는다. (중략)

그가 무엇을 바랐던가. 돈이나, 권세냐, 이름이나, 일신의 안락이나. 그는 오직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불쌍한 인류에게 기쁨을 주기를 바란 것이다. (170,443-444)

부모의 사랑과 신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순수증여의 대표적인 형상이다. 부모나 신은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sup>357)</sup> 무언가를 증여하면서 그 보상으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순간 그 증여는 교환의 사고에 의해 오염된다. 이런 생각이 섞여들면, 순식간에 비대칭성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357) 순수증여는 증여가 극대화 된 것으로서, "자신이 행한 증여에 대해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는다"(나까자와 신이치,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김옥희 역, 동아시야, 2004, 68면)다.

경제행위인 교환의 고리 속으로 떨어져버린다. 순수증여는 증여의 행위를 통해서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의 대상자’의 구별이나 분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 즉 완전한 대칭성의 상황에서만 가능해진다. 부모와 신은 아이와 인간에게 대칭성의 사고의 이상을 체현한 존재이다. 지금 봉구는 바로 그 부모와 신의 마음으로 가난한 농민들 속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봉구의 이러한 다짐이 금곡의 농민들 사이에서 거의 실제로도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자고 겨울에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농사하는 백성들의 편지도 써 주고 또 원하는 이들을 모아 데리고 가가거거 국문도 가르쳐 주고 그들과 같이 새끼 꼬고 신 삼으며 이야기도 하여 주고, 그리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농사하기를 시작하였다. 만일 늙은 어머니만 안 계시던들 그는 전혀 집 한 간도 가지지 아니하고 아주 의지가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을지도 모른다 - 것처럼 봉구는 아주 일신상의 모든 행복을 떼어 버리려고 애를 써 왔다 - 또 그대로 실행도 하여 왔다. (199,507)

봉구는 3년간 농촌인 금곡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산다. “일신상의 모든 행복을 떼어 버”렸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헌신은 자기라는 개체성의 벽을 허문 것으로 순수증여에 다가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봉구가 대칭성의 사고를 받아들인 후(재생)에 하는 행위가 농사라는 것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농사야말로 교환의 논리가 아니라 증여의 논리가 작동하는 거의 유일한 노동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농업에서는 “노동을 하는 농민과 노동대상인 대지 사이에 단순한 주체-객체의 관계를 초월한 ‘인격적 결합’이라고 부를 만한 유대관계가 형성”<sup>358</sup>되며, 이를 통해 노동과 그 대상 사이에는 단순한 부의 창출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사랑의 관계가 탄생하는 것이다.<sup>359)</sup>

#### 4. 김순영의 삶을 통해 드러난 비대칭성의 부정

봉구를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대칭성의 사고가 드러났다면, 『재생』의 또 다른 주인공인 순영을 통해서도 작가가 부정하는 비대칭성의 사고가 드러난다. 이광수는 『재생』에서 돈과 소화기와 생식기의 세상을 대표하는 순영을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비극의 한복판으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영은 소화기(돈)와 생식기(육욕)의 행복만을 좇는 삶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은 “과연 돈도 행복의 근원이 못 되고 육욕의 만족”도 “행복의 근원이 못 되는 줄을 어렵잖아도 깨닫”(104, 301)는 과정에 불과하다. 온갖 음행을 저지르는 백윤희는 순영에게서 오직 성욕의 만족만을 구하고, 그 결과 순영은 매독과 임질에 걸린다. 또한 순영은 백윤희의 경제력으로부터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결국 순영은 눈 먼 딸과 함께 가출하여, 온갖 고생을 겪다가 구룡연에서 자살한 후에 그 시신마저 모두에게 공개되는 처참한 상황에 처한다.<sup>360)</sup>

358) 위의 책, 155면. 나카자와 신이치는 농업에서 순수증여의 가능성까지 보기도 한다. “농업에는 ”증여의 원리의 극한에 출현하는 순수증여의 원리를 분명한 이미지로서 조형하는 능력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대지’나 ‘자연’이라는 형태로, 순수증여의 원리가 작용하는 토포스를 실체로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위의 책, 142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359) 농업이 지닌 증여적 성격은 『재생』 이후에 창작된 장편 『흙』(『동아일보』, 1932.4.12.-1933.7.10.)에서 본격화된다.

360) 순영의 시신은 다음과 같이 잔인하게 묘사된다. “아무도 시체를 건져 낼 생각은 아니 한 모양이다. 봉구는 폭포 밑으로 뛰어갔다. 뽕안 안개가 싸인 검푸른 물에는 분명히 순영이가 소경 딸을 업은 대로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똥똥 떠서 폭포가 내려 썰을 때마다 끔벅끔벅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둥그런 수

“행복을 따르다가 행복도 얻지 못하고 남은 것이 이 죄 많고 병든 몸!”(172,449) 뿐인 순영의 인생 역정은, 순영이 결코 비대칭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순영은 봉구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었을 때 봉구를 위해 증언하는 자기 희생의 면모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주지만, 순영은 윤희의 정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자신의 증언을 모두 거부하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간다. 그러한 거짓과 배신을 순영은 “행복의 값”(117,330)이라고 생각한다.

순영은 백윤희의 본마누라가 죽으면 정실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도 견딘다.<sup>361)</sup> 이후에 순영이 가출하는 것은, 백윤희와의 관계를 반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돈 욕심과 본처 되려는 욕심”(142.386)을 더 이상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362)</sup> 가출하였을 때 김교수가 찾아와 유혹하며 배 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하자, 순영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김교수의 말을 따른다. 결국 낙태에도 실패하고 낙태약으로 인해 눈 먼 딸을 낳는다. 순영은 딸과 함께 마지막으로 봉구를 찾아와서도 겉으로는 용서를 빌러 왔다고 말하지만, 막상 봉구가 용서한다는 말을 하자 “자기가 봉구에게서 얻으려던 것은 그것만이 아닌 것 같다.”(193,493)며 서운함과 어이없음을 느낀다. 이것은 대칭성의 사고에 굳게 자리잡은 봉구와 더욱 대

면으로 이리로 저리로 빙빙 돌기도 한다.”(208,525-526)

361) 이행미는 『재생』에서 김순영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불행이 식민지 가족법의 모순에서 비롯되며, 근대적 가족 개념의 대안으로 신념과 생활을 나누는 일종의 생활공동체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이행미, 『이광수의 『재생』에 나타난 식민지 가족법의 모순과 이상적 가정의 모색』, 『한국현대문학연구』 50집, 2016.12. 71-107면)

362) 이와 관련해 류수연은 “백윤희와의 결혼 생활에서 순영이 환멸을 느낀 것은 타락한 그 삶을 반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윤희가 순영의 육체적 섹슈얼리티를 취하면서도 그녀의 금전적인 욕구를 거세했기 때문이다.”(류수연, 『타락한 ‘누이’, 그리고 연애사』, 『구보학보』 13집, 2015, 242면)라고 설명한다.

비된다. 순영이 봉구에게 용서를 빌러 왔을 때, 봉구는 자신이 새롭게 배운 사랑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새로운 사랑법은 “네가 사랑하는 이가 있거든 오직 그를 사랑 하여라. 그에게서 사랑을 갚아지기를 바라기는 할지언정 안 갚아진다고 원망은 말아라.”(193,492)라는 말로 요약되며, 그것은 교환이 아닌 증여에 바탕한 관계를 의미한다.<sup>363)</sup>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영은 자기와 타인을 구별하는 분별심에 빠져서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아상(我相)이 가득하다. 그렇기에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로부터도 불쾌한 감정만을 느낄 뿐이다. 순영은 금강산에서 시카고 서북대학에서 학위를 받아 모교의 선생님이 된 인순과 학생들을 만난다.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인순을 보며, “그 어조와 손잡아 흔드는 태도가 냉정한 듯해서-또는 낮추어 보고 조롱하는 듯해서 순영은 불쾌”(206,521)해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의 시선도 “마치 독약을 바른 화살 모양으로 순영의 전신을 푹푹 찌르는 듯하였다.”(206,522)고 느끼며, 다른 교사들도 “반가운 모양을 보이려고는 하나 마치 거지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태도와 같다.”(207,522)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것 모두 자기라는 우상에 집착한 결과, 초라한 자신을 견디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sup>364)</sup> 생을 마감하는 장소인 금강산에서도 순영이의 비대칭적인 사고는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다. 끝내 비대칭성의 사고에 결박되어 세상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는 순영에게 이광수는 너무나 끔찍한 삶과 죽음을 선사함으로써, 비대칭적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sup>365)</sup>

363) 그러나 증여에 바탕한 사랑을 실패하는 이 순간에도, 봉구가 순영에 대한 감정을 모두 극복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봉구가 불쾌하거나 괴로울 때에 하는 표정”인 “얼굴의 근육이 움직”(193,492)이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364) 대칭성의 사고를 받아들인 봉구가, 이처럼 분별심으로 가득한 순영과의 독점적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 5. 결론

이 글은 표제이기도 한 ‘재생’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이광수의 『재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재생’을 ‘작가 개인의 재생’, ‘인류애의 체득’, ‘신을 섬기며 자기를 희생하는 거듭남’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신봉수가 두 번째 수감생활을 기점으로 비대칭성의 세계에서 대칭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재생’의 참된 의미로 파악하였다. 대칭성(對稱性)의 사고에서는 자기와 타자의 구별이 없고 개념에 의한 세계의 분리도 없으며, 온갖 사물이 교환의 고리를 탈출한 증여의 공간에서 교류한다. 따라서 대칭성의 윤리를 따르면 전체성의 균형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개인적 이익은 부정된다. 이와 달리 비대칭성의 사고에서는 증여가 아닌 교환의 논리가 작동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된다. 이광수가 『재생』에서 보여준 대칭성의 사고는 교환의 논리가 극단화된 당대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재생』은 비대칭적인 사고에 깊이 침윤된 세상의 모습을 치밀하게 보여준다. 3.1 운동이 실패한 자리, 즉 이광수의 맥락에서라면 민족 계몽이 실패한 자리에는 ‘소화기(돈)와 생식기(애욕)의 세상’이 펼쳐진다. 『재생』에서 돈은 조선 사회의 주인이라고 할 만큼 그 힘이 강력하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김순영이다. 자본의 배후에 놓여진 교환의 원리는 비대칭성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재생』에 드러난 사랑도 이기적 애욕에 바탕

365) 박혜경은 “육체를 세상으로부터 거두어가는 그녀들의 파국적인 결말은 육체에 대한 정신의 승리, 혹은 현실에 대한 계몽이념의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박혜경, 앞의 논문, 305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때의 계몽이념은 단순히 조국이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칭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비대칭성의 세계에 대한 비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것으로서, 그것 역시 비대칭성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힘이 된다. 봉구 역시도 두 번째 감옥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순영과 마찬가지로 비대칭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다. 봉구는 순영에 대한 소유욕과 독점욕으로 가득한 것이다. 백윤희가 돈의 힘으로 순영을 물건처럼 소유하려고 했다면, 신봉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순영을 물건처럼 소유하려고 한다. 순영을 소유하려는 이기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자, 봉구는 돈의 힘으로 순영에게 복수하려고 한다. 『재생』에서는 3.1 운동이 처음부터 ‘돈이나 애욕’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숭고한 운동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뜻밖의 인식을 드러낸다. 봉구가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옥살이까지 한 동기는 순영에 대한 애정으로서, 이를 통해 3.1 운동도 비대칭적인 사고의 연장선상에 놓인 사건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3.1 운동과 더불어 XX단에 속한 경훈의 활동도 모두 자기를 내세우는 비대칭성에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봉구는 이러한 비대칭성의 사고로부터 벗어나 대칭성의 사고를 깨닫고, 현실에서 이를 실천한다. 봉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지낼 때, 커다란 사상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 때의 감옥은 대칭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이 곳에서 봉구는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비대칭성의 사고를 하나씩 극복한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다른 인간과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강조하는 태도로 변하는 것이다. 봉구의 대칭적 사고가 적용되는 범주는 민족을 넘어 인류(‘천하 사람’)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이는 다시 인류애를 넘어 천지 만물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것은 자기라는 존재는 ‘종(種)’으로서의 사회의 일원이자 자연의 일원이며, 우주 속의 미미한 일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대칭성의 사고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다. 봉구가 감옥을 나와 농촌인 금곡에서 농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자신이 깨달은 대칭성 사고

를 실천하는 일에 해당한다. 봉구는 3년간 농촌인 금곡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며, 이러한 헌신은 자기라는 개체성의 벽을 허문 것으로 순수증여에 다가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봉구를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대칭성의 사고가 드러났다면, 『재생』의 또 다른 주인공인 순영을 통해서도 작가가 부정하는 비대칭성의 사고가 드러난다. 이광수는 『재생』에서 돈과 소화기와 생식기의 세상을 대표하는 순영을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불행의 한복판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이것은 순영이 끝내 비대칭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러한 순영의 비대칭적인 면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광수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광수는 『재생』에서 '소화기(돈)와 생식기(애욕)의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대칭성 사고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의 대칭성 사고에는, 이광수가 1910년대에 역설했던 근대적 개인의식은 들어설 여지가 많지 않다. 근대적 자아의 개체성에 대한 예리한 의식이 사라질 때, 전면화 된 대칭성의 사고는 슬그머니 공동체(일제)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파시즘적 윤리로 변질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일제 말의 이광수는 이러한 우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 이광수, 『『재생』 作者의 말』, 『동아일보』, 1924.11.8.  
 \_\_\_\_\_, 『余의 作家의 態度』, 『동광』, 1931.4.  
 \_\_\_\_\_, 『재생』, 『한국의 근대성 소설집』, 문성환 엮음, 북드라마, 2016.

2. 논문 및 단행본

- 강현국, 『계몽과 사랑, 그 불편한 관계에 대하여 - 『개척자』와 『재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1집, 2013.12, 120면.  
 권보드래, 『3·1 운동과 ‘개조’의 후예들-식민지시기 후일담 소설의 계보』, 『민족문학사연구』 58권, 2015년 가을, 236면.  
 김경미, 『이광수 연애소설의 서사전략과 민족담론-『재생』과 『사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7집, 2012년 겨울, 5면.  
 김기진, 『김팔봉문학전집1』, 문학과지성사, 1988, 116-119면.  
 김동인, 『춘원연구』, 『김동인 전집』 16권, 조선일보사, 1988, 84-94면.  
 김병구, 『이광수 장편소설 『재생』의 정치 시학적 특성 연구』, 『국어문학』 54집, 2013.3, 187면.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3』, 한길사, 1986, 821면.  
 김현주, 『이광수의 문화적 파시즘』,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3, 100면.  
 류수연, 『타락한 ‘누이’, 그리고 연애서사』, 『구보학보』 13집, 2015, 242면.  
 박혜경, 『계몽의 딜레마:이광수의 『재생』과 『그 여자의 일생』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46집, 317면.  
 서여진, 『『재생』에 나타난 『장한몽』의 구조』, 『춘원연구학보』 5집, 2012, 305-329면.  
 서영채, 『이광수, 근대성의 윤리』, 『한국근대문학연구』 19호, 2009.4., 156면.  
 \_\_\_\_\_, 『자기희생의 구조-이광수의 『재생』과 오자키 고요의 『금색야차』』, 『민족문화연구』 58호, 2013.2, 207면.  
 서희원, 『근대의 영웅, 부자의 탄생 - 『재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4집, 2014.8, 115면.

- 신윤주·권혁건, 「나쓰메 소세키의 『풀베개(草枕)』와 이광수의 『재생』 비교 연구-주인공의 온천체험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49집, 2011.2, 287-301면.
- 윤영옥, 「자유연애, 문화자본, 그리고 젠더의 역학-이광수의 『재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88집, 2014, 244면.
- 이경제, 「이광수의 『무정』에 나타난 근대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 『민족문학사연구』 54호, 2014.4, 247-269면.
- 이수형, 「이광수 문학과 세속화 프로젝트-『무정』과 『재생』의 탈주술화와 재주술화」, 『인문과학연구논총』 38권 1호, 2017.2, 88면.
- 이행미, 「이광수의 『재생』에 나타난 식민지 가족법의 모순과 이상적 가정의 모색」, 『한국현대문학연구』 50집, 2016.12, 71-107면.
- 이혜령, 「正史와 情史 사이:3.1운동 후일담의 시작」, 『민족문학사연구』 40권, 2009년 가을, 234면.
- 정하늬, 「회개와 거듭남, 정결한 지도자 되기 - 이광수의 『재생』론」, 『현대소설연구』 68호, 2017.12, 479-514면.
- 정혜영, 「李光洙와 幻影의 近代 文學 『再生』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10집, 2001.12, 221면.
- 홍혜원, 「『재생』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양식」, 『한국근대문학연구』 10호, 한국근대문학회, 2004.10, 64-92면.
- 三枝壽勝, 「『再生』의 뜻은 무엇인가」, 『동방학지』 83집, 1994, 212면.
- 中澤新一, 『대칭성 인류학』, 김옥희 역, 동아시아, 2005.
- \_\_\_\_\_,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김옥희 역, 동아시아, 2004.
- Levi Strauss, Claude, 『야생의 사고』, 안정남 역, 한길사, 1996, 91면.
- Pecheux, M, trans. Harbans Nagpal,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Macmillan, 1982, pp.36-88.



<Abstract>

## The meaning of rebirth in Lee Kwang-soo's 『Rebirth』

Lee, Kyung-Jae

In the 1910s and 1920s, Lee Kwang-soo's literature was distinguished by the words modernity and premodernity. If modernity at this time was mainly concerned with personality or individual consciousness, premodernity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community consciousness. The sense of community at this time was mainly related to Joseon(nation), 『Rebirth』 was discussed in a similar way. I wanted to understand that the sense of community displayed in the 『Rebirth』 relates to the idea of symmetry that is not returned to the nation. 『Rebirth』 shows the world deeply affected by asymmetrical thinking after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The money is so powerful that it is the owner of Joseon society, and Kim Soon-young is the person who best represents it. The principle of exchange behind capital has a core power that creates an asymmetric world. The original exchange works in contrast to the gift giving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principle of asymmetry. The love shown in 『Rebirth』 is also based on selfish desires, which also serve as an important force in creating an asymmetric world. Bonggu is also portrayed as being in an asymmetrical state of mind, just like Soon-young, until his second prison experience. If Baek Yoon-hee tried to own Soon-young like a

thing with the power of money, Shin Bong-gu tries to own Soon-young like a thing in the name of love. In 『Rebirth』,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re also portrayed as based on asymmetry of personal desires or interests. When Bonggu stays in prison with a false charge, he realizes the idea of symmetry away from asymmetry. The prison at this time can be seen as a place of initiations entering a world of symmetry. The category, which applies Bonggu's symmetrical thinking, extends beyond the race to the human level, and goes beyond human to the stage of universal existence. This is in line with the idea of symmetry that the existence of self is a member of society as a species and a member of nature and has meaning as a small member in the universe. Bonggu left the prison and devoted himself to the farmers in the rural practicing the symmetry he realized. If the idea of symmetry that the writer pursues is revealed through Bonggu, the writer's denial of asymmetry is revealed through Sunyoung, another protagonist of 『Rebirth』. Lee Kwang-soo clearly reveals his negative sense of the asymmetrical world by giving Soon-young a miserable life and death.

Key words: Lee Kwangsoo, 『Rebirth』, Symmetry, bestowal, exchange, pure bestowal, community

투 고 일 : 2018년 8월 25일    심 사 일 : 2018년 8월 25일-9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9월 24일